



글 / 金圭麟

(Kim, Kyu Lin)  
 토목시공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한국진단보강(주) 전문위원.  
 E-mail: kimkyulin@hanmail.net

나의 서재의 책장 속에서, 이따금 어머니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마치 소설 가라도 된 듯, 나는 한국판 “여자의 일생(기드 모파상 원작, 1883년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어머니의 눈동자, 깊게 패인 주름살, 반백의 술 적은 모발 등을 바라보노라면, 근 백년 한국사의 특징으로 되어 온 가난과 애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는 소만 국경이자 두만강 변인, 함북 중성에서 무명의 독립운동가의 장녀로, 19세기 말기인 기해년에 태어나셨다.

중매로 18세 때 진천 김씨 문중에 만며느리로 시집은 후 당시 애환을 한 몸 에 체험하는 인생의 역성을 살아왔다. 독일 작가 토마스만의 ‘붓텐부르크’처럼 몰락해간 함북 지주의 풍운과 국경도시인 용정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위치 로 인하여 3.1 운동 이후 자주 집을 비우면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아버지들 둔 장녀의 심적인 고통, 8.15 해방과 더불어 서울에서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 하던 장남의 안부가 궁금하여, 월남했다가 더 이상 고향에 돌아 갈 수 없었던 분단의 비통한 현실, 이북에 그대로 두고 온 막내아들의 생사에 늘 가슴 아팠 던 나날들, 그러다가 드디어 1946년 4월 월북하여, 멀리 바라다보시던 시부모 님을 뒤로 한 채, 작은아들인, 나만 데리고, 1947년 4월 13일 월남하면서, 15 일간에 겪었던 고난의 나날들, 6.25전쟁으로 인한 남편 실직(전쟁 전 조흥토건 근무), 피난 시절의 쪼들리는 생활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어머니의 생애를 아 로새기는 술한 사연들이다.

이 살 맛을 앗아가는 속에서도 내 어머니의 과거를 지탱 해 준 것은, 불교에 귀의한 철저한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 새벽의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어머니의 신앙은 분명히 고난을 감내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14 후퇴 피난지에서 쌀 한 말(8kg 정도)로 10일간 두 분(그 당시 나는 형님과 같이 임시 수도 부 산으로 피난)의 끼니를 이어 가야 했던 가난이 덮쳤을 때도 어머니는 좌절하 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투전이나, 병풍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등, 피눈물 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생판 객지인 평택군 오성면에 약 1 헥타르 정도의 농토를 장만하는 끈질김도 보여 주셨고, 그 후 그곳에서 행정대서소를 차린 아버지의 내조와 바깥 농사일도 하면서, 잠시 행복한 노년을 사시 다가, 위암으로 향년 67세로 저 세상으로 떠나실 때까지, 생의 대부분이 고난의 연속 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위기 때마다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 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부처님이, 우리 가정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임 을 굳게 믿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들이 역경을 이겨 낼 힘을 달라고 늘 합장 하시던 어머니의 낭랑한 음성과 근엄한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를 향한, 나의 강한 사모의 영상이기도 하다.

내가 취직 시험에 top을 했을 때도,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절을 찾아 기도에 응답해준 자애로운 부처님께 재삼 감사의 기도를 했고, 내가 군에 입대하였을 때도, 논산훈련소까지 면회를 오셔서, 군복무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합장하시던 기억이 마치도 어제와 같은데,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지도, 어언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신앙은 믿는 자에게 보증이 된다”는 신학자 말틴부버의 말은 정녕 우리 어머니를 두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어머니가 애써 기른 2남 3녀는 모두 장성하여 일제 말기부터 몰락해갔던 가세를 다시 회복하여, 형님은 시인으로 “어머니의 하늘”이라는 사모곡 격인 서정시를 남겼으며, 이 시는 아마도 훗날 그리운 어머니 옆에 묻힐 만아들의 시비의 한 구절로 될 것이다. 동아 문화센터(www.dongacc.com)에서 후진양성을 위한 시 강연도 하고 있고, 미당 서정주(1915년 전북 고창 출생) 시인의 타계로 문학계의 최장 연장자로서 시작 활동도 활발하다.

어머니의 생애를 에워싼 고생과 가난은 사라졌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눈망울과 얼굴표정에는 여전히 고난의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 애잔한 표정 속에 아직도 힘겨운 삶을 엮어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 봉사자들의 표상이 이따금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면, 나의 마음 한편이 더욱 무거워진다. 내 나이 또래 인생의 어머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고난의 여인상이었다. IMF 경제위기는 끝났다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가난한 여인들이 어머니의 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남편의 새로운 사업을 돕기 위해 그간 정든 봉사 일터를 떠나는 뒷모습에서 마치 고난의 여인상을 보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그간의 쌓인 우정과 끈끈한 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커서 그리는 어머니상은 고난이 아닌 다복, 편안, 안온함의 여인상, 어머니상이 되어야겠다. 여기에 나의 어머니론을 펼치는 세대적인 소명이 있는 것이다.

## 어머니의 하늘

김 경 린 (시인, 상하수도기술사)

그때 유난히도 푸르게  
 흘러 내리는 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잔 등에서  
 오수의 긴 여행도 했었지  
 그 따스한 체온과  
 곱던 어깨의 능선은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단지 그 하늘에

과학이 나르고  
 밤이면 하늘에 별이 기억처럼 반짝일 뿐  
 어머니의  
 그때의 하늘은 보이지 않고

〈발췌 : 조선일보 1987년 3월 11일 7면〉

(원고 접수일 2004년 11월 9일)